

월간 증현

'80 2월호



1980년대를 위한 마음가짐

요즈음은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큼직한 종자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는 것만 보아도 혹시 “호외”(號外)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뒤돌아 보곤 한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기 저기서 예기치 않던 충격적인 일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보니 종이 조각을 “호외”라고 착각하는 불안도 병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물가(物價)는 하루가 멀다하고 하늘로 치솟고, 경제정책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발전도 과연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전망하기가 불가능하고, 한국 교회의 앞날도 각 교단간의 알력과 교단내의 불화 및 분열도 예견하기가 어렵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로 탈바꿈하는 등, 오늘날처럼 확실하고도 기대해 볼만한 것이 없는 시대도 역사상 드물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오늘도 잠자리에 들어야만 하는 때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적인 문제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써, 전 세계가 타류속에 휘말려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특징 짓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속에서도 1980년을 맞이한 총현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막중한 사명들을 감당키 위하여서는 촛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야만 한다. 올해는 교회의 목회운영 조직이 다소 개편되어 당회 산하에 당회장실, 2개 위원, 2개국, 7개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니, 개편된 조직으로 예년보다 더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지난 2월 14일에는 10년간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던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으니, 이제는 온 성도가 물질과 정성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함으로써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80년 세계 복음화 대회'를 중시하여 한국 선교 100주년이 되는 1984년에는 2천만 성도가 되도록 총현교회가 민족복음화의 선봉이 되어야 하겠고, 북한 선교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감당키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천국 일꾼

됨과 동시에 천국 일꾼을 키우는 일도 구체화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속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일들을 계획하며, 진행시키며,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역사의 키를 쥐고 운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절대불변의 확실한 진리이다.

또한 불확실성 시대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추호도 없으나, 우리의 시대가 여호와와 손에 있고, 여호와와 손에 있는 우리의 계획과 경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위하여 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1980년대에 총현의 모든 식구는 불확실한 시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성만 바라보고 충성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총현에 5가지 목표를 명령하신 것은 이 일을 놓고 서로 변론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일때문에 망하게 하려 하심도 아니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려하심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모든 도를 지켜 행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더욱 친근히 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복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놓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변론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려고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오히려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성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확실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책임만 다하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이다. (주 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8 권 제 2 호
통권 7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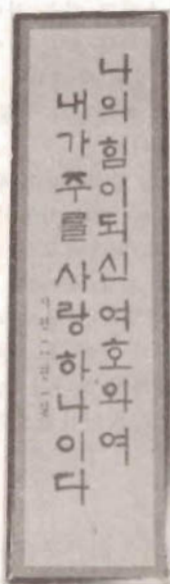
월간 충현

— 2월호 차례 —

권 두 언	1980년대를 위한 마음가짐	주 간 · 2
이달의말씀	벧엘로 재 출발 합시다	김창인 · 4
지 상특강	교회성장의 원리	이종윤 · 6
특집/1980년은 어떻게?		편집실 · 10
보 고 문	동기전도보고서	조준상 · 19
동기 전도	동기 전도를 마치고	김승연 · 20
동기 전도	동기 전도를 마치고	김정애 · 21
편집실칼럼	교회의 교육적 분위기	오태용 · 22
찬송가감상	환난과 핍박중에도(새320)	김하진 · 22
도서 정보	1월중에 들어온 도서	도서실 · 23
책 소 개	부모와 자녀	남성호 · 23
만 난 사 람	우성원공로장로	이형수 · 24
기독교윤리	생활속의 윤리(3) - 이혼	김하진 · 26
선 교 월보	선교지 소식	선교회 · 28
구 역 소 식	1월중 새교우 명단, 결혼자명단	편집실 · 30
교 회 소 식		편집실 · 32
이달의행사		편집실 · 35
편집 후기		편집실 · 35

표지설명 / 1월 21일 고등부 동기 수양회를 시작으로 해서 겨울계절학교가 막을 올렸다. 금년에 11개 주일학교가 계절학교를 열어 2월 말까지 계속된다. 사진은 1월 28-31일에 열렸던 어린이 새신자부의 제17회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의 한 장면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벤엘로 재출발 합시다

성경 / 창35 : 1 - 8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야곱의 일생가운데서 벤엘로 재출발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I. 루스광야에서의 야곱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데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중에 동생입니다. 형인 에서는 힘이 세고 튼튼한 장수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단순하고 미련하고 경솔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몸은 형보다 약하지만 꾀가 많습니다. 어머니 리브가하고 계획을 해서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하는 복을 가로챘습니다.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통이 터지자 동생을 죽일 것을 결심 했습니다. 이것을 안 어머니가 야곱의 도망 갈 길을 마련했습니다. 부엌에서 죽이나 꾸딘 야곱의 도망길은 기차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습니다. 보따리 짊어지고 도망합니다. 여관도 집도, 쉼 곳도 없습니다. 호젓한 광야에서 무서움에 떨면서 잠을 자야 하는 길이 하루, 이틀 저녁도 아닙니다. 무섭고 외롭기가 짝이 없습니다. 또 앞길에 무슨 일을 만날런지 모르니 불안과 공포와 조심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이 하루는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피곤한 몸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사다리가 내려 와 땅 위에 서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야곱아!"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6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둘째 네가 지금 누워 있는 땅, 누구땅인지도 모르고 누워 있다.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재산으로 주겠다.

세째 네가 지금은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지팡이 하나 쥐고 외롭게 혼자 도망가지만 너의 자손이 하늘

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날을 주겠다.

네째 네 자손들은 잘 되어서 천하만민이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 네 자손은 복의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

다섯째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서 도망갔던 곳에서 죽지 않고 돌아오는 날을 주겠다.

여섯째 제일 좋은 말씀입니다.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총작 야곱이, 부엌에서 죽이나 꾸고 있던 여자같은 야곱이, 무서워 떨고 공포, 근심, 외로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꿈을 꾀어 일어나니 겁과 두려움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하고 누웠던 돌을 세워 놓고 그 돌에 자기 보따리 속에 있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잔 줄 알았더니 벤엘(하나님의 집)에서 잤구나. 나는 광야에서 자는 줄 알고 무서워 떨었더니 알고보니 하나님의 품안에서 하나님의 이불 덮고 잤구나」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첫째 어제 저녁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 주신 약속이 그대로 될 줄을 믿읍니다. 둘째로 그 약속대로 6 가지 복을 주시면 내가 돌아 오는 길에 지금 돌 세워 놓고 기름 부은 이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째 내가 갔다가 돌아 올 때에 모든 얻은 재산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밭단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의 발걸이 가볍습니다.

II. 세겜에서의 야곱

야곱은 밭단아람으로 가서 수십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하나 이루어 집니다. 장가 들어 아들 열한명,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굉장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 갑니다. 자기가 돌을 세워 놓고 하나님과 약속한 뱀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 오다가 식구는 많고 재산도 많고 길고 긴 여행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들러 보니 너무 너무 좋아, 야 좋다. 들판도 좋고, 옥야천리 살만하구나 하고 세겜 성 밖에 온 백덩어리를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어렵고 외로운 도망길에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수십년 동안에 상상도 할 수 없으리 만큼 다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자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 뱀엘로 가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집어 던져 버리고 세겜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파기하는 배약자입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밖에서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난이 닥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를 듣고 분개해서 주장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딸 때문에 망신 당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들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도 잊어 버리고 자기와 자기식구만 잘 살려던 야곱의 가정이 멸망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III. 뱀엘로 재 출발하는 야곱

이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 못 되먹은 것아. 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버리고 교만과 사치와 향락에 눈이 어둡다가 이용 당했구나. 이제라도 일어서라. 뱀엘로 가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마.』 뱀엘로 가라. 그리하면 영육간이 산다.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만 섬길 목적을 가지고 뱀엘로 가라”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자기의 온 식구를 모아 놓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뱀엘로 출발하는데 먼저 정리할 것을 정리하자. 첫째로 우상을 정리합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부인 라헬이 친정집에서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숨겨 놓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절반, 우상 절반 섬기던 야곱의 집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합니다.

둘째로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 군인 생활을 할 때 옷을 바꾸어 입고 군인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

과 같이 이제 세상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을 똑똑히 가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뱀엘로 가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십일조를 바치러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온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뱀엘로 출발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뱀엘로 떠난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거짓말장이, 도적놈, 약자의 야곱에서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승리자가 됐다는 이스라엘로 불러줍니다.

또한 자손이 창성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의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효자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는 신자가 되고 자기 아버지 바로 섬기는 효자가 되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고 육신의 평안이 오고 영혼의 평안이 오고 자손만대에 평안이 오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도 뱀엘로 갑시다. 80년대의 10년동안 우리들이 바로 살면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도 복이 미치고 바로 못 살면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 절반, 세상 절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옷을 바꾸어 입고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방법으로만 살자 말입니다. 하나님앞에 복을 받아 복된 땅의 잃은 형제를 복음으로 찾으면 살고 악한 사상에 물들어서 한사람이라도 빼앗기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이러한 때를 여러분이 절감하시고 야곱이 뱀엘로 가는 생활이 꼭 이루어져 하나님앞에서 영육간에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선교를 위한 서울성회

일시 / 1980. 2. 25~29 오후 7시

장소 / 충현교회

주최 / 북한선교회

교회성장의 원리



이 종 윤목사

(절박·아시아연합신학원교수)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스가랴 4:6)

오늘 위의 말씀이 교회 성장 원리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근거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성장이라는 문제가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홀러신 학교의 매카브로교수가 인도에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이 운동을 벌이고 이것을 학문으로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성장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이론들을 그대로 따를 수 없고 오히려 많은 비판을 가하면서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성장이라고 하는 지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이라고 이야기 할 때는 3가지 면에서 이야기 합니다. 내적인 성장, 즉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 그 다음에는 숫적인 증가를 말합니다. 이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배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양적, 질적, 성장외에 지리적 확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로마로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말은 이처럼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성장하기 위해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성장 원리를 이야기 하기 전에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을 3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

습니다. 첫째는 출생에 의한 방법,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서 교회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중에서 생물학적인 방법이 어떤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두번째는 이전(移轉)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전, 부산에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김에 따른 교회 이전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설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생각할 것은 지방 교회를 잘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도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회심의 방법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교회로 들어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성장에 관해 연구해 보면 이 세가지 속에 다 포함됩니다.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교회가 줄어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성장의 세가지 방법을 반대로 보면 됩니다. 생물학적 방법의 반대는 교인들의 사망에 의한 감소, 이전에 의한 반대는 마찬가지로 이전(流出)이지요. 회심에 의한 방법에 반대되는 것은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때에 세가지 방법에 의해서 증가되고, 세가지 방법에 의해서 감소됩니다. 이면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성장의 원리를 10가지 단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교회성장의 원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성장에 관한 것은 특별한 전문가 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되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영적인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과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사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지식, 사고등을 주셨기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인 방법을 개척하고 개발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원리를 찾아 낸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는 목회자 자신들이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교회안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잘못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 19절에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어떤 법칙을 주셨을 테니까 그것을 찾아 내는 것이 성장의 첫번째 원리가 됩니다.

2. 성경의 원리가 교회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제직을 세웁니다. 집사를 임명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집사는 교회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지금의 교회에서는 집사는 하나의 계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장로는 집사보다 더 높은 것이고 이렇게 하나의 계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원리에 어긋난 일들을 많이 하고있어요. 그래서 교회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교회들의 각 부분, 각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교회가 당장 공중분해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앞에서 성경적이지 아닌 것은 하지 말고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어떠한 손해가 와도 해 놓아야 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성경의 원리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전은 짓는 문제도 중요하고 급하지만 선교를 하고, 민족복음화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원칙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칙은 모든 일을 생령으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생령의 역사로만 가능하

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며 찾으라 얻을 것이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들입니다.

또 우리는 학개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성경의 원리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권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제일로 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전건축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면 잘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예산과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비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선교교회비를 교회예산의 10%를 작성하고, 몇천원이라도 천도비를 작성하는 것이 하나님앞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지만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미국에 5개의 큰 교단을 사회적인 관심과 복음전도운동 관심에 우선권을 둔 2그룹으로 나누어 10교회를 지난 10년(1965~75년) 동안에 조사해 본 결과 사회적인 면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미국장로교회는 3년동안에 80%의 교인이, 연합장로교회는 10%,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12%,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18%, 성공회는 17%의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사회봉사,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반면에 복음운동에 관심을 갖는 교회는 어느 교회는 10년동안에 126%가 증가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 보수주의를 지킬 때에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중요한 데이터가 아닙니까. 이처럼 먼저 할 것을 빨리 바로 찾아 내는 것이 교회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둘째는 교인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이 신앙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질 때 용기가 나옵니다. 특히 당회원이나 교역자들이 이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있어야 용기가 나오고, 용기가 있어야 박력을 가지고, 진취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셋째는 직업주의를 배제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직업주의입니다.

목사가 직업적으로 월급받는 직업인이 됐을 때에 학개선지자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공격을 하는

지 모릅니다. 이 작업주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네째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을 갖지 않고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충현교회의 1980년 청사진이, 10년, 20년 아니 100년 후의 청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이 청사진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려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 꿈이 없으면 교인들이 방황을 합니다. 초점을 미래에다 맞추고 현재를 결산해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하고 용감하게 돌진할 때에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지도자문제입니다.

오늘날 지도자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교회에 혼란이 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3. 교회성장을 위하여는 변할 수 없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려하고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 전통을 절대적으로 알 때 그것은 담보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그 제도는 몇 백 년전에 제네바에서 칼빈선생이 50~100명모이는 교회에서 하던 제도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수천명, 만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려니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도 한국 교회에 맞도록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상대적인 존재로 바꾸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면 입 다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외의 이 세상의 제도나 습관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뀌서 진취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원리는 요한복음 17장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세상으로 밀게 하려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구원하는 일을 재일로 놓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8절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같이 나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8절의 땅

을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에 대해 복음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이처럼 창세기의 문화명령과 마태복음 28장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명령을 받았는데 이 문화명령은 복음명령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명령은 복음명령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명령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법도 무시할 때가 있고 복음명령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명령입니다.

선교한다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어느 민족이나 누구나가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북한선교를 하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하는 것이 충현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절대명령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교회성장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4. 효과적인 전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들을 잘 살펴서 갱신과 성장의 균형을 잘 잡아 나가야 합니다. 교회안에는 부당한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이 개혁주의 신학인데 이것은 굳은 신학, 죽은 신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점을 부단히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장점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굳어버린 것만 가지고 걸어가 집착되어 있어 자꾸 뒤만 쳐다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5.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살펴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살펴 정확히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중에는 신학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목회방향, 앞으로의 설계 방향, 선교정책, 개척교회의 설립의 신학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방향설정을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형편과 모든 사정을 잘 알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마치 체온계로 우리의 열을 재듯이 통계표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철저하게 재면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고

우리 교인중에 누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등을 자세히 알아서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주변의 사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 가고 있는 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속에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속에서 무엇이 필요한 지를 빨리 알아서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7. 소그룹운동을 잘 전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운동을 잘 해야 하는데 이 말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질식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 커지면 공중분해가 되고 맙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교회의 예산의 전부가 유지비로 다 들어간다면 교회는 질식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현금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교인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어디에 소속하기를 원합니다. 소속이 안 되면 자기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출석했을 때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된 교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8. 모교회를 통한 새로운 교회를 많이 설립해야 합니다.

지금에 있는 교회로 충분하다고 하는 말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죽는 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생과 성장은 생의 리듬입니다. 자주 출생하고 출생하여 사람이 들어 오는 대로 자주 성장이 되는 것이 교회성장의 중요한 리듬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자체 건물을 소유한 후에 개척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하고 또 혹시 우리 총현교회도 성전건축을 다 한 다음에 해외선교하자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기 때문입니다.

9. 구조적인 면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개선하지 못할 때 어떤 때는 이

성장이 둔화됩니다. 일은 하고 싶는데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하나하나를 개발해서 온 교인이 움직이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전체 교인이 움직이지 않을 때 교인들은 할일이 없어지고 교회의 성장이 둔화됩니다.

10. 교회성장을 위해 과감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모험이 없는 교회는 성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신앙만이 모험을 가져옵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볼 때 환경에 지배만 받고 산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뒤만 따라 다녔고, 하나님만 믿고 용감하게 나선 사람들이 역사를 창조했고 역사를 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앞에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 가능성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성장의 역사가 우리 총현교회에 계속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고는 연초 단기수련회중 교역자 장로수련회의 강의 내용을 녹음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새성전 건축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힘쓰십시오

총현의 모든 성도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꼭 같은 책임이 있으며 꼭 같이 힘써야 합니다.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가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 전체나 각 지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1980년의 새 출발

1980년을 맞으며 교회는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새 출발을 시작했다. 보다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활성있는 유기체로 만들고자 개편된 조직은 정비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 힘든 상태였다. 이에 상호 업무의 이해를 위해서 또한 각 조직의 발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알 필요가 절실해져 월간총현 2월호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보기로 했다. 많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것을 토대로 점차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정리해 본다. 순서는 1실(당회장실) 2위원(감사위원, 인사위원) 2국(사무국, 출판국) 7위원회(예배위원회, 전도위원회, 교육위원회, 심방위원회, 건축위원회,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로 한다.

당회장실

당회장의 목회운영 방침과 교회의 미래상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제반자료를 수집, 정리, 기획하고 당회장이 교회내의 제반 목회활동 및 행정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을 유지 보고하며 당회장의 대외업무 수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조직 신설된 부서이다.

1. 조직

실장/윤형철

총무/이 손 서무/김순옥

2. 운영방안

가. 교회 미래상 형성을 위한 업무

- 1) 위원장 협의회(월 1회), 위원회별 모임(격월)
- 2) 당회장과 교역자간의 간담회(필요시)
- 3) 당회장의 목회운영계획의 구체화
- 4)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동향을 분석정리

나. 교회내의 목회활동 및 행정업무

- 1) 당회의 결정 사항을 해당기관에 지시, 전달
- 2) 각 기관의 업무활동 및 활동사항을 보고 받아 정리하여 당회장 및 당회에 보고
- 3) 교회 현황 유지

다. 당회장의 대외업무 보좌

- 1) 북한 선교회 업무 보좌
- 2) 대내외 스케줄 작성을 위한 보좌
- 3) 필요시 당회장 수행
- 4) 외부 연사의 당회장 방문을 접견

〈실장/윤형철목사〉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지난해의 감사위원회의 계속이다. 조직 개편과 함께 7개위원회가 생김에 따라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사위원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교회 각 지회의 회계감사업무를 주업무로 하게 된다.

1. 조직

수석위원/윤종순

위 원/황기성 오태희 김영개 신현상 고병욱 정석태

2. 운영방안

1980년도 감사는 매 분기마다 1년에 4회 실시할 예정이다. 교회내 감사업무의 목적이 부정과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것인 것 보다는 올바른 방법과 방향제시를 위한 것이기에 각 지회 회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서로 오해 없기 바라며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겠다. 따라서 회계감사 업무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될 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이월금의 착오여부 ② 올바른 기재 ③ 정당한 기장방법 ④ 올바른 계정 과목 ⑤ 부서장의 결재여부 ⑥ 영수증 처리 문제 ⑦ 반환금 처리 ⑧ 부서간 수불대조

〈수석위원/윤종순장로〉

인사위원

인사위원은 지난해까지의 인사위원회의 계속이다. 조직개편과 함께 7개위원회가 생김에 따라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인사위원으로 개칭하게 되었고 교회내의 모든 인사문제를 총괄하게 된다.

1. 조직

수석위원 / 송순일

위 원 / 한명욱 위영환 김기정 최석주 교육위원
회 서기

사무국

금년도의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신설된 부서이다. 점점 팽창되는 교회 각 부문의 사무 행정 일체를 총괄하게 되며 교회내의 직원 관리 및 효율적인 사무실의 운영등을 다루며 교회내 각 부서, 기관등의 운영 내규등을 제정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1. 조직

국장 / 최석주

국원 / 조현명 이태규

출판국

금년도의 조직 개편과 함께 신설된 부서이나 기존에 있던 월간 중현 편집위원회와 인쇄실, 녹음실을 포함하고 30년사 편찬위원회를 추가하여 교회내의 인쇄출판 녹음의 일체와 홍보관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조직

국장 / 조현명

국원 / 조선근 김차생 김하진 윤형철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2. 운영방안

가. 월간중현편집위원회

계속적으로 월간중현발간업무를 담당하며 금년에는 해외의 주요도시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중현의 권속을 위해서 지국 역할을 할 통신연락처를 둘 계획이다.

나. 인쇄실

교회내의 모든 유인·인쇄물을 담당하게 되며 금년엔 인쇄시설을 확장하여 업무의 신속, 정확, 능률향상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인물, 인쇄물의 규격통일, 통제업무, 질적향상을 위해 내부·외부에 주문하는 일체의 원고를 출판국을 경유할 것을 바라고 있다.

다. 녹음실

모든 예배 및 주요 집회의 녹음을 하고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설교녹음테이프를 제작하는 일을 담당

하게 된다.

라. 30년사 편찬위원회

보다 충실한 교회사 편찬을 위하여 자료정리와 자료수집업무를 계속할 것이며 1980년도 사업으로는 1979년 교회 연보를 발간하여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장 / 조현명장로〉

예배위원회

주일 정식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주일학교의 예배 및 집회, 천야기도회, 찬송회등을 관리하며 성가부관리를 위해 금년에 새로 조직된 부서이다. 이는 예배 및 집회등을 통해 전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된다.

1. 조직

위원장 / 김창인

위원 / 한영철 김하진 송순일 김기정 임광식 이동규

2. 운영방안

위원회를 통해 예배의 순서 및 담당, 예배 및 집회의 개최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되며 이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교회 전체의 집회 및 예배등을 관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전도위원회

교회내의 전도 활동의 총 지휘 및 감독을 담당하며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북한선교 등의 전도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금년에는 전도위원회 산하에 남전도회, 여전도회(1,2부), 산업전도회가 들어와서 명실공히 교회내의 전도활동의 총사령탑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 조직

위원장 / 김종택

서 기 / 서동석

회 제 / 박치민

위 원 /

기획분과 : 김석원 김은호 김천재 서동석 장주석

외지분과 : 김영휘 최석주 신현상 김영삼 손동운

내지분과 : 남성호 이동규 박치민 손경수 이옥너

특수분과 : 유재일 오태희 이창업 신평근 명정옥

총동원분과 : 이양우 강순용 장병기 김경생 오태용

2. 운영방안

각 분과 별로 나누어 각 분과의 그유업무를 수행하며 월 1회씩 위원회를 통해 상호협조, 조정해 나

간다. 각 전도기관(해외복음선교회, 남전도회, 1,2 부여전도회, 산업전도회)은 자체내의 계획과 업무를 수행하되 사전에 전도위원회에 보고 승인을 거쳐 상호 상충을 피하도록하고 전도위원회에서 전체를 늘려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계획

가. 전도위원회

1) 지교회 관계—모든 지교회의 성장을 위해 우선 지교회의 사정을 파악하는 일과 지교회 교역자를 초청하여 훈련시키는 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년1회이상 지교회를 탐방하여 격려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2) 전도대 파송—금년 겨울에는 우리 교회 사상 최초로 동기 전도대를 파송(실시했음)할 것이고 여름에도 9개처에 전도대를 파송할 계획

3) 특수전도—구치소, 병원, 군대, 산업체 등의 특수전도를 꾸준히 펴오고 있지만 금년에는 군 전도에 더욱 주력하게 될 것이다. 군중사병 훈련을 연6회, 사관생도훈련을 연2회 계획하고 있으며 육군, 공군사관학교에 교목을 파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총동원 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방전도, 전도지 발행(연150만장), 자 지회에 맞는 전도 전략 연구 등 보다 더 많은 하여야 할 일들을 쌓아 놓고 있어 교우 여러분들의 힘찬 기도와 격려가 있기를 부탁하고 있다.

나. 해외복음선교회

1) 홍보분야—금년에는 현지 선교사들과 교우들과의 교량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분야에 힘을 계획이다. 현지 풍물, 활동상황을 담은 사진 슬라이드 등을 소개하고 현지 선교사의 편지를 회원들에게 보낼 계획



〈전도위원회는 금년에 우리 교회 사상 처음으로 동기전도대를 파송했다.〉

2) 재정분야—교회내의 선교회원을 확보하여 선교사업에 동참케 하고 해외에서도 선교회원을 확보하여 재정적 뒷받침에 부족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

3) 연수분야—앞으로의 계속적으로 효율적인 선교사업을 위해 선교지역, 선교정책연구 및 선교자료 정리 및 분석업무를 계속해 나가며 선교세미나 등으로 선교의식을 고취하고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4) 각 선교지—각 선교지에 행정위원, 정책시달 등이 계속될 것이며 선교사 양성 및 평신도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업연구가 계속 될 것이다.

5) 실행위원—1980년도 해외복음선교회 임역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최석주

지 도/ 김영희 부지도/ 조준상

실행위원/ 위영환 한경일 조선근 신현상 강순용

김의철 고병욱 정하우 김남조 남선우

신동수 김봉재 안윤진 박순옥 이영주

유순녀 유갑순 문명애 박영엽

다. 남전도회

1) 지교회 보조—1980년에는 장락·금현·서현 교회의 보조를 계속하게 되며 연2회에 걸친 지교회탐방등을 계획하고 여름에는 지교회를 중심한 무의촌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 또한 지교회에 찾아가 영화상영도 계획하고 있다.

2) 임역원

회장/ 이동균 부회장/ 이창엽

서기/ 김원선 부서기/ 송기홍

회계/ 강모용 부회계/ 최 환

라. 제1부 여전도회

금년부터 여전도회가 둘로 분리 될45세이상의 회원으로 제1부 여전도회가 구성됐다.

1) 지교회 설립 및 지원—마카오에 새로 설립되는 교회를 위해 매월 지원하고 매월 교회를 계속 보조 지원할 예정이다. 그외에도 강남서립병원회 전도사 파송, 군복보조 등의 지원 사업이 있다.

2) 임역원

회장/ 이옥녀 부회장/ 전인화

총무/ 이신일

서기/ 박옥식 부서기/ 김능철

회계/ 박선부 부회계/ 김중복

마. 제2부 여전도회

만 45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 금년 첫 개업편도를 맞게 된다.

1) 지교회설립—새로 제2부 여전도회가 보조, 지원하는 지교회 설립을 할 계획

2) 임역원

회장 / 명정옥 부회장 / 황정숙
서기 / 박월희 부서기 / 이명자
회계 / 홍명순 부회계 / 박영업 김인호

바. 산업전도회 금년도 산업전도회는 「산업인의 가슴속에 삶음을 심자」는 주제하에 기업주의 복음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1) **기업주 복음화**—기업주 복음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주 초청 좌담회와 직장 예배처를 5곳 개척, 직장단위 전도집회, 직장 모범 신앙근로자 및 사원표창 등을 계획

2) **성경통신과실시**—직장인들의 효과적인 성경공부를 위하여 성경통신과를 운영할 계획, 이미 교재가 지난해 말에 6권으로 출간되어 있다. 그외에도 직장전도인을 육성할 방침

3) **조찬 기도회**—회원간의 친교와 산업전도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월 1회 조찬기도회를 가질 계획, 또한 교회 산업인의 주소록도 발간할 계획이다.

4) 임역원

회장 / 오태희 부회장 / 최상규
서기 / 김영근 부서기 / 정재모
회계 / 김영생 부회계 / 최대원
(위원장 / 김종택목사)

교육위원회

최근에 이르러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단지 중요하다는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주일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일반적인 현상인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의 먼 앞날을 생각할 때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며 아울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말세지말에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시대적인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충청교회에 갖고 있는 교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해석은 80년대의 첫 문에 들어선 1980년에 이르러 하나의 전환기적인 변화가 서서히 일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충청교회 교육의 사명 탐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몇가지 근본적인 교육사업의 해결을 위해 모든 힘을 집약하여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아울러 새로운 사명감에 불타 있다는 몇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조 직

가. 1980년 이전과 이후의 교육위원회 조직

간단히 말한다면 1979년까지의 충청교회 교육위원회 조직은 주일학교 교육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1980년부터 개편된 새로운 조직은 교육의 범위를 교회전체적인 것으로 확대한 것이다.

즉 1979년까지는 교육위원회가 주일학교 15부만을 관장하여 왔으나 1980년부터는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성경학원, 장학회, 도서관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교회 전체층에 걸쳐 교육문제에 관한 한 교육위원회가 이를 관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보기: 1980년 교육위원회 조직표 참조).

물론 성경학원, 도서관, 장학회등이 이미 10여년 전에 발족이 되어 그간 당회 산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한 몫을 담당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이를 당회 산하의 한 기구표에 공식적으로 통합하여 단일화 시켰다는데 새로움이 있으며 앞으로 교육문제를 단일화하여 다루게 될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까지 끼쳐왔던 교회 교육에 있어 전혀 다른 교육적 효과를 끼칠 수도 있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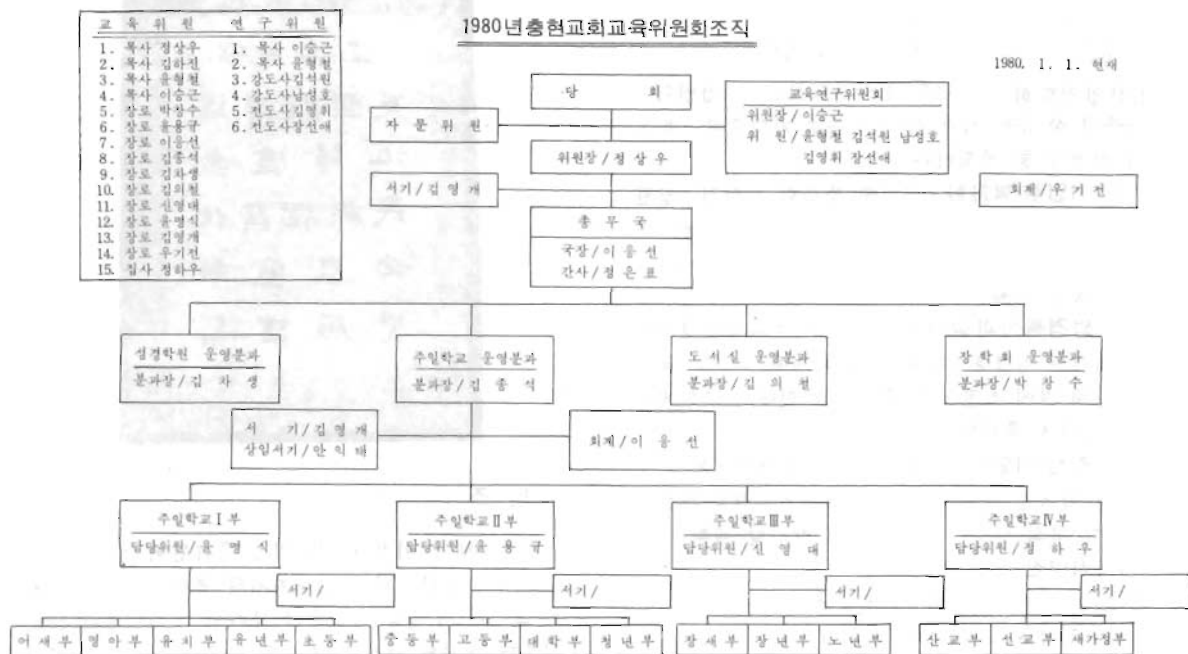
나. 1980년 교육위원회 조직의 특징

1) 인적구성

1980년의 교육위원회는 1979년까지 28명이었던 위원수가 15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종전에 비해 13명이나 줄어든 숫자이다. 15명 위원의 구성을 보면 교역자가 4명, 시무장로 10명, 피택장로 1명이다.

이같이 위원수가 줄어든 것 외에 다른 한가지 점을 더 지적한다면 과거는 주일학교 15부 부장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할 3~4명의 집사를 교육위원

[보 기]



으로 임명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일학교 15부 부장과 집사를 교육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즉 앞으로는 교역자와 장로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2) 주일학교 각부 부장을 집사로 임명 주일학교 각부 부장에 시무장로가 임명되던 과거와는 달리 새해부터는 부장이 집사를 임명하기로 한 것이 조직의 변화중 가장 큰 변화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일학교 부장을 장로에서 집사로 바꾸어 임명하게 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교육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 해서이다.

과거는 주일학교 각부 부장 장로가 주일학교 부장인 동시에 교육위원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매사에 있어 자연히 주일학교의 전체적인 면을 생각하기 보다는 소관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주일학교 전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객관성을 띄워야 할 교육위원회가 주일학교 각부의 부장이 모인 실무자협의회와 같은 인상을 씻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교육위원회는 자연히 행정적인 협의기구 역할 이상을 벗어날 수 없었고 심지어 주일학교 각부 부장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교육위원회에서 해당부의 의견을 얼마나 관철시키느냐 하는데

두어 교육위원회가 본래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기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주일학교 각부의 편견적인 주장과 이해가 앞서 주일학교의 전체적인 발전에 저해가 되어왔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고 교육위원회 본래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교육위원을 교역자와 장로로만 구성하고 주일학교 각부 부장은 집사로 임명하여 교육위원회와 주일학교와의 업무한계를 분명하게 분리하게 된 것이다.

즉 교육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주일학교 부장은 부장으로서의 각자의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성격을 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우리교회의 기구의 규모에 비하여 아직은 시무장로의 수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시무장로로 하여금 가급적 여러가지 업무를 중임하지 않도록 한다는 교회의 새해 인사방침에 따라 교육위원중 시무장로가 과거 16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한 개인적인 업무량을 줄이고 책임한계도 좁혀 한 분야에만 정진하게 함으로서 능률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는 이같은 인사 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째, 유능한 집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오래동안 우리교회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여 온 집사

들 가운데는 유능한 분이 많다. 이러한 유능한 집사들을 교육의 일선에 세워 봉사하게 함으로서 주일학교 운영에 있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집사를 주일학교 각부의 부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행정의 체계와 부장의 권위가 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교육위원회의 주일학교 담당위원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3) 교육연구위원회의 병설(並設)

교육위원회가 산하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자칫 수직적이고 행정적인 면에만 치우칠 염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1980년부터는 교육위원회에 자문기구로 교육연구위원회를 병설하였다.

오래 전인 1975년 교육위원회와는 완전히 분리 독립된 기관으로 교육연구위원회가 신설되었다가 1년 만에 해체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같은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위원의 일원이 되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위촉사항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육연구위원회로 하여금 이같은 교육위원회의 실제적인 문제 연구 외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회 교육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연구과제를 자체에서 설정하고 이를 교육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연구토록 하고 있다.

2. 운영방안

교육위원회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에 비하면 1980년 교육위원회의 운영방침은 1979년에 비해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교회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가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주일학교의 운영이 전부였던 교육위원회가 성경학원, 장학회, 도서실등을 조직에 포함하게 됨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전체적인 조화와 융합문제가 완전하게 해결 되려면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종전처럼 주일학교 운영이 교육위원회 업무의 주요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으리라 보고 보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점차적으로 성경학원, 장학회, 주일학교, 도서실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중현교회 교인 전체를 위한 장단기 교육계획과 운영방안이 수립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전체하에 1980년도 교육위원회의 운영방안

을 주요 분야별로 몇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교육위원회의 전체적인 방향

교육위원회가 지켜야할 앞날의 방향을 『새성전·새시대·새사명』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오래토록 소망하던 새성전이 완성될 것이며 새성전이 완성되면 80년대라는 시대적인 새로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현교회로 서도 교회 역사의 장(章)을 달리하는 새로운 중현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사명도 또한 새로워질 수 밖에 없는데 이같은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초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나아가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중현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9 월을 교육의달로 지켜 교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계획이다.

나. 성경학원운영분과

성경학원의 1980년 주요사업과 운영방안은 예년과 같이 교회단기 수련회, 농어촌교역자초청훈련, 농어촌평신도지도자초청훈련, 성경학원, 지도자양성부, 성경통신강좌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이같은 평신도 교육과정과 주일학교 교육과정과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상호의 중복성을 피하고 교회 전체적인 교육체계를 계통성있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장학회운영분과

가급적 장학회의 문을 넓게 열어 앞으로 일반사회의 각 분야에서 천국일꾼으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장학회의 운영방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장학기금이 너무도 빈약하여 이러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많은 장학기금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면서 아울러 장학회의 본래 뜻을 충실히 살리는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라. 도서실운영분과

도서실도 또한 성경학원운영분과와 같이 새해에도 특별한 변동은 없고 계속적인 장서의 확보와 아울러 열람자들을 위한 서비스업무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1980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과제는 연간도서구입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교회행정과 목회관계, 선교관계, 교육관계등 전문분야별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확보하여 앞으로 목회 실무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점이다.

마. 주일학교운영분과

지금까지의 교육위원회와 주일학교와의 관계가 행정적인면에서는 잘 이루어져 왔으나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상호협조하는 관계에 대하여는 미약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육위원회는 단지 행정적인 지도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인식이 바뀌어 교육위원회가 주일학교 각부의 일선 교육문제 하나 하나에 있어 협력자가 되며 대화자가 되며 나아가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지도기관으로 인식되도록 주일학교 각부와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관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올해 안으로 매듭지어야 할 몇가지 연구과제를 교육연구위원회에 위촉(교육연구위원회 항을 참조할 것) 하였으며 실무자협의회를 통하여 주일학교 각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그때 그때 해결지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1) 실무자협의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자협의회는 주일학교 각부의 실무자(지도교역자, 부장)와 교육위원과의 모임인데 이 모임을 매월 둘째 주일에 연어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주일학교 각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교육위원회 운영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매월 각부별로 미진한 행정업무에 대한 확인과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2) 주일학교재정

현재 주교재정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출단가의 적정성을 산출해 나가는 문제일 것이다.

올해부터 주일학교 각부의 수입일체를 일단 교육위원회에 예치하였다가 필요시 인출하도록 주일학교 재정운영제도를 바꾼 것은 첫째 주일학교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기 위한 것이며 부차적으로 주교재정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어떤 수준이 현실적인 지출단가 수준이나 하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의 과제이며 아직도 생산성보다는 소비성에, 교육에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면에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주교재정 구조를 과감하게 바꾸는 문제이다.

바. 교육연구위원회

주일학교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가 1980년 연구과제로 설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충현교회 주일학교의 교육이념을 재검점하고 이를 성문화한다.

2) 주일학교 교사의 교육과정을 완성한다.

3) 현 주일학교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체계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재구성한다.

4) 주일학교 각부의 지도교역자와 교육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계획을 마련한다.

이같은 연간 연구계획 이외에도 매월 교육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연구 검토하여 교육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위원장 / 정상우목사)

심방 위원회

1. 조직

위원장/ 김재창

서 기/ 김원선

회 계/ 박치민

위 원/

심방분과: 정상우 허 준 오승률 최순복 양정백

인사분과: 김종택 김한홍 마성락 이두란 강봉선
김용선

교육분과: 이성봉 홍중섭 신영대 구명선 김원선

통계분과: 김하진 김경철 감연이 김은숙 박치민

(각 분과 업무분담)

1) 심방분과: 교회적인 구역심방, 유교심방, 대심방, 특별심방과 각 기관의 심방등에 관하여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한다.

2) 인사분과: 교회의 제직 인선 및 각 구역 권찰의 배치와 이동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3) 교육분과: 구역장, 권찰의 각종 교육훈련과 구역집회를 위한 구역공과 예비교육등을 담당한다.

4) 통계분과: 등록카드, 심방카드, 교적카드등 교인의 사항을 사무 처리하고 통계업무 일체를 담당.

2. 운영방안

1980년도 조직개편으로 심방위원회에는 구역 권찰회와 권사회를 두게 되었다. 구역권찰회는 지난해 169개 구역에서 219개 구역으로 증가하여 교인들의 심방과 상담등을 담당하게 된다. 금년에는 이에 따른 인사, 통계, 교육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책임자들로 하여금 연구, 발전케 할 계획이다.

또한 권사회도 심방위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교인

들의 가정을 돌보아 일을 돕게 되며 교회내의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을 더하게 되었다.

가. 구역권찰회

회장에 김재창 목사, 서기 박치민 집사, 회계 문홍구 집사가 담당하게 되며 각 지구 간사로는 지구에 황현철 집사, 2 지구에 김종구 집사, 3 지구에 이창호 집사, 4 지구에 김종주 집사, 5 지구에 강모용 집사가 담당하여 1년동안 수고하게 된다.

1) 심방관계

대심방은 1년에 1회 하되 한 지역을 반으로 나누어 봄에 절반, 가을에 절반한다. 담당교역자의 한 지역담당을 1년으로 하고 대심방, 유교심방, 신앙상담을 하되 유교시 부팀이 이를 대행한다.

2) 구역집회 및 구역임원

구역 집회는 1년중 3, 4, 5, 6, 9, 10, 11월 (7개월)만 모이되 격주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역집회시 구역장이 구역 강사를 겸하여 구역장은 구역행정 일체를 담당해야 한다. 또한 구역담당 권사와 권찰은 매주 금요일 구역원을 심방하고 유교 가정이 있을 때 즉시 담당교역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구역원 유교시 업무 절차

담당지구 제반사는 지역담당 교역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구역원의 유교시, 특히 경조사가 발생시 그 절차와 주례자 문제등을 지구 담당 교역자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협력구역 관계

협력 구역은 가능한 한 인접한 구역을 담당자로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이 협력구역이 구역단위철야기도회의 당번이 된다. 협력구역은 경조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구역원 파악 및 파견시무규정

등록 혹은 이동에 따르는 구역원 증감에 관한 파악과 통계는 그 구역원의 주거지에서만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방은 점포나 사무실, 기타 근무처가 있는 구역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 구역을 떠나 다른 구역에 파견 시무하는 구역장, 권사, 강사, 권찰들은 업무상 시무하는 구역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헌납관계는 당사자의 가정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권사회

권사회는 특별계획을 세워 사업을 하기 보다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1) 임역원

회장 / 양정백 부회장 / 신군자 김상권

서기 / 백죽심 부서기 / 장순실

회계 / 삼 숙 부회계 / 윤희순

(위원장 / 김재창목사)

건축위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한 끊임없이 물심양면으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있는 건축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새 성전 건축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많은 해야 할 일을 쌓아 놓고 있다.

1. 조직

위원장 / 김기정

위 원 / 위영환 윤종성 임광식 한경일 노광현 이창업 오진국 이병학 이옥녀 안윤진 오희명 정선화 이명자 이혜숙

2. 운영방안

그 동안 건축허가로 이 모양 저 모양 애썼으나 건축허가가 남에 따라 이제는 착공하여 건축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현장에서 바쁘게 됐다.

금년에 계획은 본당 및 교육관 골조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온 교우의 기도와 후원이 계속 되어져야 겠다.

재정위원회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교회전체의 살림을 맡아 하게 된다. 교회의 모든 재정의 출납관리와 아울러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연구를 하게 된다. 특히나 금년은 새 성전을 착공해야 하는 해이기에 재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며 교회내의 각 부서 및 온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다.

1. 조직

위원장 / 윤종성

위 원 / 이응선 한경일 우기전 박치민 청봉조

오정현 김영남 문옥순

자산관리 위원회

80년도 본교회 조직 개편에 있어 7위원회중 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비대 해 가는 행정업무에 비추어 본 교회 자산 보존관리 업무를 전담케 한 것은 지극히 시의(時宜)에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 온 지 1세기동안에 700만 성도를 보유하게 되고 만교회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마당이라 피 선교국인 이 나라가 세계만방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반세기전 2, 3백명 정도에 불과했던 교회가 오늘에 수천 수만명의 대 교회로 발전하고 있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교회마다 업무량은 증가되고 수익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조성되는 각종 자산의 정리와 보존관리 업무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연간 5억여원 경상비 예산을 책정하고 산하에 각부 회계만도 무려 43개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들로 부터 조성되는 자산은 일반 기업체에 못지 않는 막대한 액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우리교회도 일반 교회와 마찬가지로 연간회계(예산, 결산)만으로 종결을 지어왔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자산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어 이를 조직적으로 체계화 하여 전체 자산의 통계와 이의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케 하려고 발족한 것이 이 자산관리위원회인 것이다.

1. 조직

위원장 / 황기성

위 원 / 윤중순 이동규 황창룡 정석태 고병욱

2. 운영방안

운영방안으로는 우선 1979년말까지의 모든 자산을 종별로 정리하여 상대 계정을 과년도계정으로 책정하고 향후 80년도 부터는 각회계 연말결산 마감 즉시로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는 본 관리위원회로 이관하게 하고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미청산계정)는 익년도로 이월정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의 이동 소멸이 발생할 시는 그때 그때 일선회계로 하여금 이체 또는 이관받아 기장정리 하므로써 자산목록 작성 및 대차대조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

자산관리위원회에는 본 자산보존관리 업무 외에 충현 동산 운영 및 기도원운영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충현동산 및 기도원은 과거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므로 앞으로 이 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별개로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충현동산은 정석태장로가 담당하고 계시고 한명옥 장로가 재단전무 이사로 수고하고 계시나 도, 군, 읍 등 대외 대내의 제반 긴급사를 처리해 오시던 고 김창배장로님께서 떠나신 후 선정이 또한 시급하다 하겠다.

기도원관리 역시 이동규장로께서 담당하고 계시나 현장 실정까지 파악하기에는 인원보충이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모처럼 발족한 본 위원회 사업에 큰 성과 있기를 기원할 뿐이다.

(위원장 / 황기성장로)

품질 보장과 신용으로 봉사하는
제일모직 전문 판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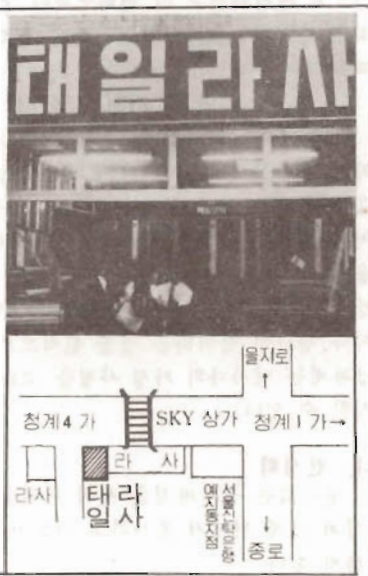
태 일 라 사

◎ 취급품목

- 고급 순모 복지
- 모 혼방복지
- 숙녀 복지

대표 이 태 송 집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220
(전화 261·5786)



전도대원 확보가 어려우나 전도 대상자는 만나기 쉬워



조 준 상 전도사

(선교부 부지도)

□□□... 늘 여름철에만 농어촌에 전도대를 파송해 온 우리 교회가 금년 겨울에는 처음으로 겨울철에 전도대를 파송했다. 처음으로 실시된 겨울전도대의 모든 것을 마치고 그 진행과 준비, 평가, 소감등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보고 겸 정리해 본다.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겨울 전도대가 내년부터는 보다 폭 넓게 진행되었으면 싶다.□□□

지금까지 하기에만 실시해 오던 농어촌 전도 활동을 금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동안 강원도 인제에 있는 서현교회와, 정선에 있는 신현교회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하기 농어촌 전도대 파송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동기 전도 활동 때 부딪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점검하며 진행되었는데,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도 위원회의 후원과, 전도대원들의 성실한 인내와 수고로 100여명의 전도 결실을 가지고 돌아왔다.

가파르고 눈덮인 강원도 산길을 주의 인도 하심 따라 말길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최후로 모인 반성 좌담회에서 나온것을 요약 정리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 할 수가 있는데, 그중 첫째는 하기 전도와 비교하여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둘째는 제반사항을 진행할 시 착안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1. 동기 전도의 장단점

(1) 전도대원 확보가 여름 전도대 확보때 처럼 용이 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직장 휴가가 있어 지원자가 많지만 겨울에

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기 전도대 편성시 부딪히는 난제중의 하나이다.

(2) 여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겨울에는 교통편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오지는 더욱 그렇다.

(3) 추운 겨울이므로 집회장소에 난방이 잘 안되어 집회 출석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내년도에 동기 전도는 예산시 연료비 책정을 하여야 할 것 같다.

(4) 동기 전도가 하기 전도보다 유익한 것은 전도 대상 즉 전도 받는 사람을 쉽게 확보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5) 전도시 전도 할 시간이 하기 전도때 보다 많다는 것이다.

2. 진행시 착안 할 점들

(1) 효과적인 전도 전략과 결신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늦어도 3주전에 장소 답사를 하여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능한 의사는 정확한 진단에 정확한 처방을 내리듯이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답사 인원은 3명이 이상적인 것 같다.

1명은 지도 교역자로서 말씀 선포에 준비를 위하여, 1명은 남대원으로써 전체 프로그램 작성과

진행을 위하여, 1명은 여 대원으로 식사와 제반 숙소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답사시 착안사항은 ① 인근 주민 대상 파악 ② 생활 및 교육정도 ③ 종교현황 ④ 교회 현황 ⑤ 주민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큰 요인이 무엇인가. ⑥ 본 교회에서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 ⑦ 기타 사항.

(2) 장소 답사를 근거로하여 전도 전략을 수립하되 가능하면 지도 교역자 중심으로 전도대 별로 전략을 세움이 바람직 하다. 특히 교역자는 분명히 금번 전도봉사 때 주교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정하여 새벽, 낮, 저녁 집회를 일관성있게 준비 하여야한다. 준비되되 전도 설교 메시지로 쉽고,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는 빼놓지 않고 전하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전도 불만 조성하다가 돌아 오는 것보다, 봉사 활동후에도 계속 교회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낮 집회 순서에는 주일학교 교사 훈련이나 제직훈련을 한다면 참으로 유익하고 바람직한 전도 결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4) 조심스럽게 인도자가 착안할 점은 해당 교회 교역자가 봉사 활동후에도 전도와 교회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전도활동때 뿌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5) 전도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뒤에도 잘 결실 할 수 있도록 계

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한다.

3. 결 론

하거나 동기 전도는 양자 다같이 장단점이 있으므로 반반으로 나가되 대상지 선정은 홍보활동(기독신보나 기타 홍보물)을 통하여 엄선하되 동기 봉사와 하기 봉사의 효율성이 참작하여 선정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는다.

끝으로 성실한 준비와 성령님

제 1 회 동기 전도대 개요

구 분	1 대	2 대
주 제	좋은복음을 전하는 사람 <롬10:14, 15/ 찬송 261장>	
일 자	1월 22-24일	1월 21-24일
장 소	강원도인제군기린면서리 서현교회	강원도정선군정선읍신월리 신현교회
교역자	조준상 전도사	유국남 전도사
대 장	양한주	조관식
대 원	김정애 박수경 전영희	김승연 홍지향 송양원
예 산	133,000원	133,000원

의 전적 도움을 위한 기도로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 놀라운 영광을 거두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 동기전도를 다녀와서—신현교회*

삶 그리고 죽음



김 승 연

(중등부교사·선교부회원)

모든 열기가 승화되지 못한 채 뽕뽕 얼어붙는 동장군이 온 마당을 덮는데도 구원의 열차는 빈 의자의 주인을 찾으러 힘차게 달려갔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과 나무의 매듭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본다. 주가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기에, 창가에 비친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내 마음의 지금과 내일이 주님의 형상대로 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로 주님의 작품에 갈채를 보내는 동안 구원의 열차는 멎었다.

「감바윗골」의 미천하고 미천한 자의 등불이 되기 위해 세워진 한 십자가가 우리를 맞는다. 이제 구원의 열차의 문이 열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작은 무리들은 얼어붙은 대지 위에 누워있는 주점들을 향해 외칠 것이다. 부활의 길을, 영생의 길을.

생명의 고고지성이 죽음의 신음소리로 바뀌기까지 하늘과 땅, 자연과 자신 밖에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 연연히 생명만을 이어가는 작업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하며 또 거두어 들인다. 폭 패인 눈과 미늘이 일어나는 주름진 살, 빛이 없는 방, 그리고 호흡뿐이다. 그네들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도 그것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폐허가 된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처럼 영혼도 육체도 온전히 서있지 못하는, 다만 생존에 불과한 저들에게 예수의 무리들은 살아가는 법과 삶의 이유를 설명했다.

예수는 한 평의 땅에서도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신 심는대로 거두는 그것,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그 은혜. 하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며 공정 하던가! 거대한 천체의 움직임부터 미세한 플랑크톤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이 마위 뒤 그늘에 소외되어 있는 생존자들을 그의 무리를 통해 부르셨다. 그들에게도 생명의 몫이 있기에 그 몫을 예수를 사랑하는 무리의 손에 쥐어 주셨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아, 당신은 남의 몫을 쥐고 무엇을 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아, 당신의 손을 펴서 빛을 잃은 죽음에서 삶의 길로 인도하라.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가르치신대로 행하라.

통나무 다리를 걸으며 깨어진 얼음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속에서 진한 생명의 소리를 듣는다. 흐르는 그 물은 언제까지나 흔탁해지지 않으며 목마른 그 어느 곳인가에 흡수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그 작은 한 방울의 생명의 의미인 것이다. 우리의 삶도……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



김 정 애

(제이성가대원·선교부 회원)

서울을 벗어난 차가 이제 한가롭고 깨끗한 풍경을 보이며 달린다. 산을 뒤흔은 새하얀 눈, 하얗게 얼어 붙어 버린 강, 그 위에서 썰매를 지치는 꼬마들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무섭도록 춥다는 강원도 날씨에 대비한 두툼한 옷차림이 차안의 따뜻한 공기 탓인지 무겁게 느껴진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점점 깊은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나 보다.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굴뚝에서 피어 오르는 저녁 즈음 서현교회가 있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에 도착했다. 주위는 몹시 한가로운 풍경이었다. 듣고만 알던 강원도의 언덕 루성이 풍경이 아닌 넓다랗게 펼쳐진 눈이 눈에 많이 띄었다.

반갑게 우리를 맞는 박강도사님 내외분, 두 꼬마, 사택에 들어가 도착예배 후 숙소로 짐을 옮겼다. 저녁에 있을 부흥집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가진다.

복음의 빛을 들고 온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며…….

네군데로 나눌 수 있는 이곳 서리는 작 마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첫날 저녁 부흥집회에 꽤 많은분들이 모여 들었다.

우리의 계획대로 오진 중에는 어린이 성경학교와 교사훈련, 전도훈련을 했다. 다른 시골과 달리 이곳에는 젊은 층, 중·고등학생들이 꽤 많다. 이 젊은이들이 이곳을 위해 일을 한다면 짧은 시일내에 이곳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몇몇 중 고등학생이 이 서현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위

해 열심히 일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잘 양육시킬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이곳 서리는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란 생각이 들며, 이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환경, 교사, 교재 등이 아쉽다.

눈보라가 치는 산골을 따라 집집이 들어가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놀라운 소식들을 전한다.

따뜻한 아랫목으로 청해 들이는 강원도 산골의 훈훈한 인심이 어디서나 느껴졌다. 이 고운 마음씨를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조금 해진다. 이곳의 모든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도록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름에 전도대로 나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나 이번에도 역시 깊게 느낀 것은 정말 복음의 빛을 기다리는 곳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어두움의 권세에 눌려 있는 불쌍한 영혼들, 빛되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곳들, 헛된 우상 앞에서 헛된 이를 부르며 헛된 제물을 드리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 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3~15)

축호 전도 하는 중 들은 애기인데 이곳에 서현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도 못들어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복음전파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많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러니 복음전파의 자유조차 없는 나라는 어찌하리요. 우리의 환경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의 권고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울 수 있었던 것은 서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서현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을 보았기에 더욱 그러했다. 귀신들린 어떤 사람의 나옴의 역사, 병을 치료하시는 역사·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믿는 이들의 어린 믿음이 하루 빨리 성숙한 단계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을 수 있는—에 이르기를, 간절히 빌 뿐이다.

서리를 떠나는 우리에게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의 외침이 들리는 듯했다.

교회의 교육적 분위기

오 태 용

한 나라의 장래가 그것의 교육에 좌우된다고 한다면 한 교회의 장래 또한 그 교회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교회 교육에 성공하고 있는지 칼럼자로서는 알지 못한다. 소위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교육이 성공적이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생각 있는 사람이면 연초의 부흥회 기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신앙지식이 대강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였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결함 중 한가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 큰 것에 편승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다. 교회 큰 것과는 상관 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력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으니 그를 좀 더 잘 알고 섬기기 위해, 또 이단사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력은 쌓아져야 한다. 그것은 공부하는 율사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 길러져야 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해서 실력을 높여야겠다는 분위기가 교회 전체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분위기의 압력이 작용할 때 교회는 건전한 성장을 지속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기만을 기대하는 피동적 자세를 지양하고 각자가 자학자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 안다. 소그룹으로—예컨대 당회원끼리, 주교 부장들끼리 등등—공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 방향은 성경학원에서 잡아주면 탈이 없을 것 같다. 두달에 한권씩이라도 좋은 신앙서적을 선정해서 충실한 해설—읽고 싶은 마음이 통하도록—과 함께 지시적 광고를 함으로써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것에 성공하면 아랫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요즘 같은 입시철,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말이 사방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참교로 시간 없다는 사람들을 위해—우리의 24시간 중 토막시간이 의외로 많다는걸 아실때—그걸 실효 활용하시라. 예컨대 칼럼자 같은 출퇴근의 만원 버스 안에서 차가 정거하는 시간에만 책을 읽어도 눈 빠지지 않고 매월 한권 독과는 어렵지 않다.

환난과 핍박중에도

〈새 320〉

환난과 핍박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우리는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앞에 감사하자. 이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들 주변에도 그렇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 남편이나 혹은 아내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시야를 좀 더 넓게 떠 보자! 지금도 공산권내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또한 얼마나 많을까? 특히 휴전선 너머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있는 줄 안다.

그들은 아마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아니 오늘에 사는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자격조차 없지 않을까? 부른다고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것은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그렇다. 이 찬송을 불러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반성하고 그저 하나님앞에 감사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된 저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비록 몸은 옥중에 매여 있다고 해도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만도 못하다면 분명히 우리는 영적 환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런 의미없이 이 찬송을 부를 수는 없다. 이 꼭 자체가 흥겨운 저음을 갖고 있는 3/4박자의 노래로 되어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기쁨에 넘쳐 불러야 할 것이다.

이 찬송은 웨버(Frederick William Faber) 신부가 처음 쓴 것이었으나 웰튼(Lames G. Walton)이 증보 수정하여 1874년에 그가 편집한 찬송가집(Plain Song Music for the Holy Communion office)에 실렸던 것이다.

우리 다같이 이 찬송을 좀더 의미있게 부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순교하는 피의 호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충성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성경학원지도)

＊ 도서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제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1 월 중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주석류

- 1) 신명기강해(상): 매킨토쉬, C. H. 저, 권혁봉역, 생명의 말씀사, 1978, 20cm
- 2) 출애굽기: 랑게저, 김진홍역, 백합출판사, 1979, 499p, 21cm
- 3) 민수기: Fay, F. R. 저, 김진홍역,
- 4) 신명기: Schreder, W. J. 저, 김진홍역

2. 구약

- 1) 구약사개론: 화이퍼, C. F. 저, 김영배역

3. 성경

- 1) 엠마오 성경연구: 신성중저, 명지대출판사, 1980, 330P
- 2) 성경문제집: 총신대출판사편, 1979.

4. 교리사

- 1) 기독교교리사: 뮐러 루이스저, 신복윤역, 총신대출판부편, 1979, 22cm
- 2) 기독교신학개론: 뮐러 루이스저, 신복윤역, 은성문화사, 1979, 21cm

5. 기독교윤리

- 1) 종교성 없는 기독교의 존재는 가능한가? 모리스, 레온저, 이장림역, 생명의 말씀사, 1977, 159P 19cm
- 2) 십자가와 나: 휘걸, F. 저 서문강역, 생명의 말씀사, 1979, 131P
- 3) 기적적인 삶: 아놀드, 프레더저, 권달천역, 생명의 말씀사, 1979, 255P

6. 전도

- 1) 전도하지 않는 죄: 존 스타트저, 김영배역, 예수문서선교회, 1979, 148P

II. 기증도서

- 1) 기독교와 문화: 김득용, 김의작, 신성자, 이귀자 외 공저, 총신대출판부(이귀자 교수 기증)
- 2) 구약 신학논문집: 윤영탁역, 총신대출판사 1979, (윤영탁목사 기증)

＊ 책소개＊

H G 기너저 김순희 옮김

부모와 자녀

한영문화사 1972 217페이지 1000원

오늘날 만큼 자녀에 대한 교육에 중심과제가 된 일이 없는 줄 안다. 더욱이 자녀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탈선하는 사건들이 오늘의 신문에 매일 빠짐없이 연출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교육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그 자녀에게 가져다주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들은 발견해야 한다.

더욱이 자녀의 교육이 어린 유아기때부터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고 아니 태중에서부터 교육이 꼭 필요불가결 하게 필요를 느낀다면 오늘이 지면을 통하여 여러부모님들에게 이 한편의 책을 꼭 권하고 싶다.

나 자신이 이 책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깨달음과 아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도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시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권하면서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 만큼은 결단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과 이웃에 빛을 나타 내는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제 1 장에는 「어린이들과의 대화」가 나온다. 여기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로서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도하기에 아이들의 성품이 온순해지고 개성을 찾는 길이 나온다.

제 2 장에는 「칭찬과 비평의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데 칭찬도 경우에 맞는 칭찬을 해 줘야지 과분한 칭찬은 도리어 자녀들의 마음을 공포와 교만으로 이끌고 나가기에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

제 3 장은 「자신의 패배감을 모면 하려는방법」

제 4 장은 「책임감과 독립성」

제 5 장은 「훈계: 관용과 제한」

제 6 장은 「어린이의 하루생활」

제 7 장은 「질투심」 제 8 장은 「아이들이 걱정하는 원인들」 제 9 장은 「성교육」 제 10 장은 「성의 생활과 사회활동」 제 11 장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 제 12 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

각 장마다 부모인 우리들에게 구구 절절히 아주 유익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

남 성 호 전도사 <중등부지도>



우리 교회와 함께 고난과 기쁨을 같이 한 충현교회의 산 역사

지난해 12월 30일 저녁예배시 본 교회 초대장로로 교회설립시 부터 함께 수고하여 온 우성원장로의 공로장로 추대식이 있었다. 부산 동일교회 시절부터, 서울동일교회, 충현교회를 거쳐 30여년 가까이 우리교회와 애환을 같이 해 오고 모든 부흥, 발전과정을 지켜 본 우리 교회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우성원장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우성원장로는 감리교에서 장로가 되어 부산 해운대 제일교회에 출석하면서 부산 동일교회 건축시 기술지도를 해 주어 동일교회와 관계를 맺고 서울로 수복한 1953년 9월 13일 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건축관계의 일을 보시므로 교회건축의 기술적인 지도를 담당해 오시므로 남보다도 더 많은 알지 못 하는 수고를 해 오셨다. 우리 교회가 지난 1973년에 제정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제 제정에 따라 현직에서 은퇴하게 되었다.

“부산 동일교회시절부터 건축관계 일을 보면서 서울에 와서도 건축관계일을 돌보아 왔는데 그 당시에 교회 건축하는데 참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의 본당을 완전히 완공하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지요. 6.25동란 후 각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잡아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 문제가 겹쳐 더욱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충분한 이해와 여건이 있

었던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전담하다시피 건축관계일을 맡게 되니 자신의 개인문제나, 가정문제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 초창기의 교회당 짓던 때의 남모르는 피로운 문제들이 지금도 제일 어려웠던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점들은 계속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되니 더 할 나위 없이 기쁘고 제 개인적으로는 당회장 김목사님이나 모든 장로님들이 정년에서 물러나게 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웅숭한 대접을 해 주게 되니 고맙기가 그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앞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느면에서는 무척 고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사람들의 평가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책임을 담당하는 일이기에 남모르는 피로움과 고독을 맛보아야 되는 지도 모른다.

더구나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때 더욱 그럴 것이다. 우성원장로님도 건축관계 일 뿐만 아니라 초대부터 1976년까지 23년 동안 제직회 영선부장일을, 1977년에는 노년부 부장, 1978년에는 기도원관리소 관리위원회 소장 일을 맡아 보시기도 하며 여러 면에서 충성하시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건실한 당회와 순종 잘하는 교인들, 또한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이 여러면에 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후배 장로님들이나 또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옛날에 하던 식으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저 좋다. 좋다고 끝나지 말고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집의 일을 돌보고 관리하듯이 신중히 의논하고 연구해서 매사를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선에 물러나 다시 노년부의 학생(노년부는 70세 이상)으로 노년부에 출석하시는 우장로님은 이제 앞으로의 제 일 시급한 문제는 “새 성전 건축”임을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노년부 초기의 100여명 에서 지금은 170-80명이 출석, 초기에도 장소가 비좁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2 배 가까이 늘게 되니 그 어려움은 족히 짐작할 만하다.

이처럼 장소의 협소함을 몸소 느껴 서도 그렇겠지만 성전건축 실무를 담당해 오셨던 장로님이기에, 앞으로 의 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강조하시는 지도 모른다.

이젠 노년부에 출석하며 여러면에서 은혜를 받고 만족한다고 하시며 자신이 해야 할 남은 일은 뒤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은 아직도 정정하시다.

사회에서도 계속 일을 보시고 계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정년제로 인해 일선에서 물러나심을 펍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초대장로가 모두 정년으로 물러나고 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 일들을 맡게 되고 하면서 교회는 더욱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것은 우리의 옛말에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교회의 어른들이 큰 뿌리가 되어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그 힘이 후배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교회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큰 원천이 될 수 있기에 말이다. 그런면에서 정년으로 물러나시는 분들은 일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중요하게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 우리 교회를 전고하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는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형수 집사)



〈 공로 장로 추대식에서 〉



생활속의 윤리(3)

<이혼>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성경학원지도)

* 연재순서 *

- | | |
|-------------------|-----------------|
|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 II. 하나님나라 형성 |
|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 사상 | 8. 생활속의 윤리 |
| 3. 신약의 윤리관 | I. 결혼 |
| I. 신약의 도덕적 이상 | II. 가정 |
| II. 예수님의 교훈(윤리관) | III. 이혼 |
| 4. 인간과 윤리 | VI. 성 |
| 5. 초대 교회의 윤리적 배경 | 9. 사회속의 윤리 |
| 6. 윤리적 척도인 양심 | I. 기독교와 종교문제 |
| 7. 기독교의 도덕적 이상 | II. 국제질서·전쟁·평화 |
| I. 사랑의 실천 | III. 기독교 윤리와 문화 |

이혼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소홀히 생각할 수 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묘한 점들이 많이 있으므로 쉽게 규정지어 말할 수 있는 문제도 못된다.

다만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만연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는 심정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짝지어 인격이 연합된 것이므로 어떤 이유든지 경솔히 이혼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이며 윤리관이라 하겠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면 인간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무시함으로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여성의 인격이 유린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 역시 여성의 인

격적인 회복은 되었다 할지라도 성적인 타락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 왜 결혼한 가정이 이혼이라는 비극을 낳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인간성의 부패에 기인하는 것이겠으나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줄 안다.

첫째,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의견신장과 사회적 불만 등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금세에 들어와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무지에서 해방을 받는 동시에 여권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발달로 인하여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적인 구조가 이성간의 교제를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이라든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변에 따라 생활양식이 급속히 변화되고 사회적 불안으로 가정이 동요되는등 이혼이 외

부적 요인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내적 요인에 의한 가정불화를 들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혼이란 가정불화에서 오는 하나의 부산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불화의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 몇가지만 예를 든다면 ① 상대방에게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했다가 결혼후에 그 기대와 차이가 생겼을 때 부부간에 언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② 갑자기 어려움이 가정에 불어 닥쳤을 때 생활에 대한 피로로 불화가 생기게 된다. 결혼이 곧 행복이라고만 생각했다가 결혼후 피로운 일들이 연속되면 자연히 가정에 대하여 취미를 잃게 되고 불화가 생기게 된다. ③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만당했다고 느껴질 때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나 충돌이 생기게 된다. ④ 부부가 의식주 생활이나 기타 습관의 차이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실망에 빠지게 할 때 피차 간격이 생긴다. ⑤ 사상과 의견의 차이로 ⑥ 야심이 나功名심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될 때 ⑦ 어느 한쪽에 너무 과중한 회생을 강요할 때 ⑧ 애정이 모성애로 나타날 때 부부간의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나 하면 결혼할 때부터 계속 여자의 애정은 전부 남편에게 집중되게 되는데 자녀를 갖게 되면

자연히 그 애정이 분리된다. ⑨ 상대를 시기함으로 ⑩ 남편의 가족, 특히 시부모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결혼의 실패는 장모나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나 혹은 신혼자들이 그 모친에 대한 지나친 신뢰에서 기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이유와 요인에 의하여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적인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에 있어서 자기 증여적인, 비요구적인 사랑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랑만이 온갖 충돌을 넘어 항구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격적인 차이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에서 생기는 충돌 같은 것은 사건 자체로서는 사소한 것이나

날마다의 격노(激怒)와 흥분이 있게 되면 결국은 치명적인 파탄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서로 용서해야 하며, 질투를 피하고, 육체적인 매력이 상실된 후에라도 여전히 사랑하며 소망중에 참고 견디는 아름다운 충성으로 결혼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다만 아가페적 사랑 뿐이다.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의 결핍이 현대 결혼생활에 놀랄만큼 높은 이혼율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결혼이 존속하고 있으나 마음은 이미 갈라진 결혼생활에서 온갖 불행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 소위 "정신적 학대" (mental cruelty)라는 이름 아래서 진행되는 이혼 사건의 거의 전부가 타인중심적인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에로스(erotic)적 사랑에 근거했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한번 결혼한 이상 이혼할 수 없음을 말씀한다. (마 5:31~32, 16:18, 막 9:43~48, 막 10:11~12) 초대 교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즉 완성된 결혼은 하나의 성례로서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연합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은 나눌 수 없는 것 같이 결혼도 그렇다는 것이 로마교의 입장이다. 그러나 종교 개혁 이후 이혼의 이유로 유행에 관한 성서적인 교훈을 재론하게 되었고 그 후 오늘날 여러가지 근거로 이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하여 고전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어쨌든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개업하면서

금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사업 터전을 허락하시어 알파양복점 (Alpha Tailor)이란 새 이름으로 개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기쁨주고 칭찬받는 알파의 새 이름이 길이 보존되어 하나님께 영광되어 지기를 다짐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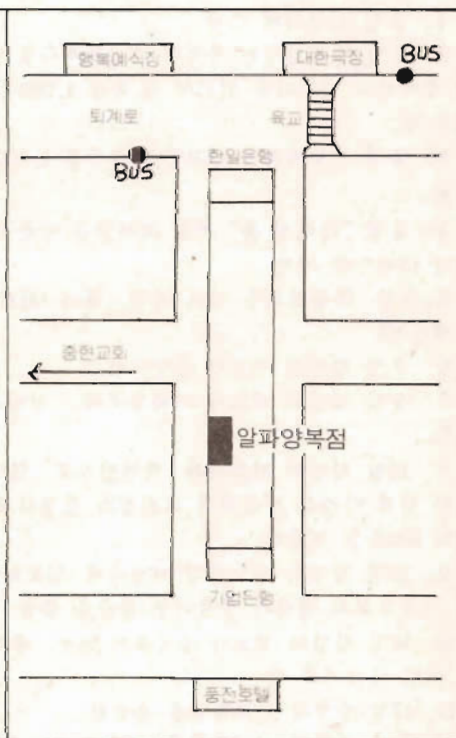
대표 김 은 호 장로

알파양복점

충무로 4가 125의 1 (대한극장건너편)

진양상가 라열 152호

전화 261-2876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 월보

선교 월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서만수선교사

1. 장례예배

원목 개발 업체인 아주임업 현장에 취업중이던 한 상육씨의 부인 장례식을 12월 24일 12:00시에 거행.

2. 비자 연장문제

11월초에 수속을 시작한 비자 연장문제는 아직도 관제당국의 허가서를(중앙정보부 발행)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지 사역

장년 38명과 어린이 11명이 결신하였습니다.

기도 제목

비자 연장 수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홍콩-홍종만 선교사

1. 1일 신년예배 드림

2. 2일 중국 신학원 중국인 조천은목사를 방문하여 중국 선교 실무자를 위하여 월 홍콩 1,000불씩 돕기로 함.

3. 3일 인도네시아 선교헌금 홍콩불 1,200불 송금함

4. 4일 "라이킹 홈" 저능 고아원을 방문하여 구제금 45만원을 전달

5. 6일 공동회의를 열어 예산 통과 (한화 3천 3백만원)

6. 7일 김영휘 전도사 홍콩도착

7. 9일 김영휘 전도사 지하철공사 삼일기도회 인도

8. 10일 김영휘 전도사와 백인빈장로 영업택목사와 함께 마카오 방문하여 교회장소 결정하고 선금 미화 500불을 지불함

9. 13일 김영휘 전도사의 저녁예배 인도와 김두환 시카고교회 권사의 중국여행 간증을 들음

10. 14일 김영휘 전도사 중국교회 연구 홍콩센터에 매일 나가기로 함

11. 17일 중국에 선교헌금을 송금함

(집회소 건축비 1,300불중 500불과 전도순회

여비자로 100불)

12. 18일 중국 선교부 카우프만 목사를 방문하여 김영휘 전도사 훈련전 부탁. 선교출판을 위하여 홍콩불 1,000불 전달

13. 중국에 성경책 보내기 위하여 여비자로 홍콩불로 800불 전함

애굽-이준교·김신숙 선교사

1. 이준교선교사: 언어훈련을 위하여 1월 27일 아메리칸 아랍어 연수원에 입학하려고 함

2. 김신숙 선교사: 신학도서관에서 문서 선교에 전념하고 있음.

3. 교우심방 21가정 하였음(12월중)

4. 12월 5일 카이로 한국학교 개교하다

장소: 한국 총 영사관저 부속건물

5. 12월 9일 동산토건 살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기능공들을 중심으로한 현장 교회 예배 드리기 시작(배 정기 공휴일마다 모이기로 함)

6. 12월 13일 이연호 선교사 묘소와 몇곳의 유적을 답사.

7. 12월 18일 애굽 복음주의 교회 총회장 엘리야스 마칼 목사 만나 애굽 농촌 선교문제를 재차 협의하다.

8. 12월 20일 카이로 한인학교 운영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장소: 카이로 총영사관 회의실

여기에서 이준교선교사가 운영회장직을 맡았다.

9. 12월 23일 헬리아 폴리스 지역에 있는 한국 가정 식구들을 위한 가정교회 예배 시작하다.

10. 12월 24일 성탄축하 촛불 예배드림

2부순서엔 어린이 성경암송대회.

가족 찬송 부르기 대회(8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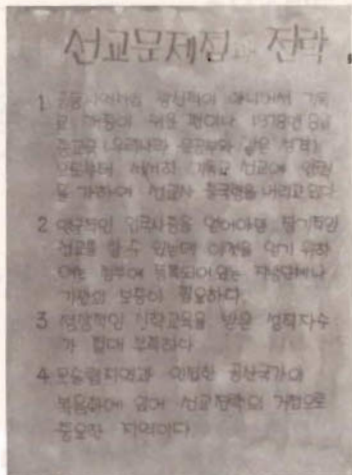
11.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림

기도 제목

1. 이준교 선교사의 노동허가를 얻는 문제를 위하여

2.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위하여

3. 두 선교사 가족들의 건강과 선교의 성공을 위하여



(제 6 회 선교주일에 가졌던 선교전시회중 인도네시아편)

서 독-육호기 선교사

〈뷔츠부룩 한인교회〉

1. 12월 2 일 교회 창립 2 주년 기념예배
 2. 12월 9 일 성례식 거행
- 세례 3 명과 학습 8 명 받음

〈비스바덴 한인교회〉

1. 12월 16일 성례식 거행
 2. 성탄절 연합예배(비스바덴, 하나우, 뷔츠부룩)
- 장소: 뷔츠부룩 한인교회
행사: 성극, 선물교환
3. 승용차 3 입

기도 제목

비스바덴 교회에 건물구입을 위하여

호 주-김태현 선교사

1. 성탄 축하 연합예배 및 파티
연합예배에 한인교회 어린이들의 특별노래와 연주 순서를 가짐.
2. 심방: 차사고 심방 2 회, 환자 심방 2 회, 일반심방 16회, 교인의 내방 7 회 하였음
3. 특별모임 참석
27일에는 한호 친선 모임과 29일에는 한인회 총회에 참석 진도함.
4. 접대 및 봉사
주일예배후 독신자와 새로 나온 분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5. 외향선 승무원에게 전도 1 회 실시

본 부-해외복음선교회

일 본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1. 12월 30, 31일에 새벽기도회 인도.
2. 1월 6 일 성도 코이노니아 점심집대.
3. 1월 9, 16, 23일 부인 성경반 창세기 공부

기도 제목

계속 두분건강과 하나님의 성역에 주님의 강건한 보호하심이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백성룡 선교사

공한 미도착

인 도-엘리아겐간 선교사

공한 미도착

1 월중 새 교우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지구

창신①구역	문창숙	종로구 창신 3 동 1 - 16 1/5
창신①구역	박영자	종로구 창신 3 동 1 - 16 1/5
심양④구역	조경행	도봉구 미아 7 동 837 - 219 11/6
심양④구역	김동준	도봉구 미아동 852 - 687 7/3
정능 구역	이시윤	성북구 정능 1 동 34 - 8 4/1
광희②구역	박정숙	중구 을지로 5 가 77/5
청량①구역	손선영	동대문구 청량 2 동 205 - 358
심양③구역	엄조희	도봉구 미아 3 동 134 - 39 1/5
광희①구역	정점순	중구 광희동 1 가 17 - 2 5/2
미아②구역	박영배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모전 2 리 781
동송 구역	윤선주	종로구 이화동 9 - 45 8/1

• 2 지구

홍익 구역	조영주	성동구 하왕십리 1 동 779 - 2호
마장 구역	박언규	성동구 행당동 26 - 4 20/5
흥인①구역	손영민	중구 황학동 867
중곡①구역	신주영	성동구 중곡 3 동 174 - 174
면목②구역	이순옥	동대문구 면목 1 동 121 - 19 6/2
면목①구역	홍옥례	동대문구 면목동 499 - 27
송정 구역	김한중	성동구 군자동 134 - 103 34/5
신당③구역	이재신	중구 신당동 241 - 26 10/3
흥인②구역	한남현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 19동 701호
사당②구역	허 준	관악구 사당 5 동 431/11 21/3
흥인②구역	한병원	중구 황학동 327 10/5
풍납 구역	김기순	성동구 풍납동 우일아파트 7동 502호
사당②구역	황오원	관악구 사당동 220 - 58 12/5

• 3 지구

잠실①구역	박명숙	강동구 잠실 4동 시영 APT 17동 14호
시영①구역	김종운	강동구 잠실 4동 시영 APT 25동 42호
응봉 구역	전종숙	인천시 부평구 작전동 24 - 1 태양
강남①구역	강옥자	강남구 역곡동 361번지
목정②구역	윤명숙	중구 목정동 25 - 6 14/3
도곡②구역	김기덕	강남구 대치동 은마 APT 6동 505호
도곡①구역	홍준상	강남구 도곡동 도곡제 2 APT 29동 206호

• 4 지구

여의②구역	노원석	영등포구 여의도동 1 - 681 서울 APT
신림①구역	박지환	관악구 신림 2동 98 - 283호 1동 509호
대조 구역	홍희순	은평구 대조동 74 - 58
상도①구역	이승본	관악구 노량진 2동 302 - 244 15/3
상도①구역	한용석	관악구 상도 3 동 244 - 192 12/6
반포②구역	최옥영	강남구 반포동 279 - 5 신반포 APT 11동 305
필동①구역	김철희	중구 충무로 4가 116 - 10
필동④구역	장영환	중구 필동 2 가 103 - 4호 3/1
방배②구역	안상근	관악구 방배 1동 24 - 2 제일은행 독신자합숙소
봉천①구역	공명자	봉천 4동 175 - 12 1/6 청구연립주택 A동 1-3
이태원구역	윤금숙	용산구 이태원 1 동 63 - 34 3/5

• 5 지구

신촌 구역	김이봉	서대문구 창천동 368
을지①구역	이금숙	중구 입정동 272 - 5
청운 구역	인치상	종로구 청운동 4번지 7호 4/1
서대①구역	김금동	종로구 신문로 1가 65 - 1
효자 구역	최은옥	종로구 옥인동 47 - 352
구로 구역	황정길	영등포구 가리봉 2 동 32 - 11 3/2
중부 구역	남삼숙	중구 오장동 14 4공구 B동 2층 261
부천 구역	정명화	경기도 부천시 서흥내동 280 - 15 6/3
공평 구역	진정례	강서구 대치동 은마 APT 6동 505호

새로 나오신 교우는 장년 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년 새신자부는 매주일 오전 11시 50분에 동판 3층 장년 새신자부실에서 모입니다.

* 축하 합니다. (1 월중 결혼)

- 황명자양(장위 1 구역) 7일 오후 1시 30분 진주예식장에서
- 유순자양(우계동씨 4녀) 8일 12시 흥성교회당에서
- 한준기군(영아복교사) 와 이송화양(최홍순권사 딸) 19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김영순양(김동원집사 김경희권사 장녀) 21일 오후 1시 왕십리 새울 제일교회당에서
- 이성섭군(주교교사) 22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이근수군(이봉섭 장로 문명숙 권사 2남)과 장준혜양(장성두 집사 딸) 29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안성희양(임정자집사 딸) 29일 12시 영빈관에서

* 권찰수첩 *

구역집회를 위한 지침

김 재 창 목사 <실방위원회의위원장>

1. 목 적

금년에는 219개 구역 전체가 구역 집회를 갖되 ① 성경공부 ② 예배 ③ 성도의 친교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도록 애써야 한다.

2. 시간

성경공부와 예배를 겸하여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친교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하며 전체 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진행 및 강사

1) 개별구역 단독으로 집회 가 어려우면 이웃구역과 연합

해서 모이되 구역집회장소는 구역대표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구역강사는 구역장이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치강사를 구역원중에서 세울 수 있다.

3) 연합구역으로 모일 때 구역강사가 2명 이상이면 서로 협의하여 윤번으로 하도록 한다.

4) 구역담당장로나 본 교회 교역자들이 구역을 순회할 때는 가급적 그분들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는 것이 좋다.

4. 보고

구역집회에 관한 결과는 매월 구역권찰회시에 구역보고서의 구역집회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해야 한다.

5. 교사 준비공부

구역교사들은 매달 첫 주일 저녁예배 1시간전에 있는 교사 준비 공부 시간에 꼭 참석하여야 하며 이미 배부된 공과지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6. 기타

구역장 및 구역교사들은 월간충현지와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구역원들을 교회방침에 따라 지혜롭고 은혜롭게 인도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힘쓰십시오!!!

우리 민족은 지금 여러모로 긴박하고 험난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도 초비상 시기인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구국비상회개금식기도를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마침 '80세계복음화대성회는 전국의 700만 성도에게 구국비상회개금식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기도운동을 그저 보고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충현의 모든 교우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기도운동에 동참합니다. 이에 '80세계 복음화 대성회기도운동의 실천요령을 소개합니다

◇ 실 천 요 항 ◇

1. 운동기간: 2월10일 - 3월 20일(40일간)
2. 집중금식기도실시기간:
2월 29일 - 3월 2일(3일간)
3. 3월 1일은 범교회적, 범민족적 회개의 날로 호소하여 구체적으로 각자의 죄를 회개

하되 하나님 안민는 죄, 불요한 죄, 미워한 죄, 음란죄, 불의로 취한죄, 거짓말한죄, 탐욕죄 등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4. 교회의 예배때마다 통성으로 3분간씩 개인의 회개와 나라 위한 구국기도를 드립시다.
5. 이 기간중 700만 크리스찬은 매주일 아침 한 끼를 금식하여 모아진 헌금은 개인 또는 단체 혹은 교회별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도움시다.
6. 북한 동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7. 교회마다 24시간 연배금식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레 6:13)
8. 이 운동이 개인의 회개로 시작하여 범교회적, 범민족적, 범국가적 차원의 회개운동으로 확산 전개되는 계기되기를 호소 합니다.
3월 1일을 금식일로 선포하고 자기의 처소마다, 교회마다 뜻있는 국민마다 범국가적, 민족적 회개의 날로 지켜지기를 호소합니다.

새성전 건축허가

오랫동안 끌어 온 새성전의 건축허가가 지난 2월14일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이로써 1970년11월15일 논현동에 대지를 구입한지 10여년 만에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구역장실무교육

구역행정을 담당한 구역장을 위한 실무교육이 지난 2월11일(월) 오후 7시에 모였다. 각 지구별로 나뉘어 각 지구 담당 구역자의 주관아래 모인 이날의 교육에서는 구역장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과 구역집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1978년 5월25일 새성전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위한 정지작업을 끝내고 일부 자재를 확보하는 등 건축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왔었다. 이제 허가가 남으로 곧 착공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지도자양성부 강화

성경학원은 지도자 양성부를 금년부터 강화하기로 안을 정했다.

현행 6개월(총50시간) 이수하면 수료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1년과정으로 총96시간을 수강케 되어 있다. 또한 교사 자격증은 별도로 희망자에 한해 12시간의 실습과

정을 거친 후에 자격증을 수여키로 했으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도

- ① 수료시를 기준 세례받은 지 2년 이상인 자.
- ② 2/3 이상출석 석자
- ③ B학점(80점) 이상인 자
- ④ 초등교육 이상인 자.
- ⑤ 만20세 이상인 자로 규제하기로 했다.

금년도 학기는 3월부터 11월 까지이고 개강일자는 3월2일 오전12시 당회실에서 개강할 예정

구역자 이동

장년새신자부와 심방을 담당하신 이성봉목사가 은평교회의 담임 구역자로 가시게 되어 본 교회를 사임하셨다. 또한 고등부부지도 성주진전도사가 대학부부지도로, 공석이던 유치부부지도에는 유치부교사로 수고하던 김정자 선생을 임명했다.

1980년도 중현성경학원 학생모집 요강

1. 학기구분 및 기간

- 1) 제 1 학기 : 1980년 3월 6일(목) ~ 7월17일(목)
- 2) 제 2 학기 : 1980년 9월 4일(목) ~ 12월18일(목)

2. 학생모집 정원

- 1) 야간 보통반 / 60명
(1) 입학자격 : 본 교회 남, 여 세례교인 (타 교회 교인은 본 학원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함)
(2) 수업일자 : 매주 월, 화, 목,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 2) 주간 보통반 / 60명
(1) 입학자격 : 야간 보통반과 같음
(2) 수업일자 : 매주 목, 토, 오전10시30분부터 3시간씩
- 3) 연구반(야간) / 30명
(1) 입학자격 : 본 교회 남, 여 세례교인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타 교회 교인은 본 학원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함)

(2) 수업일자 : 야간 보통반과 같음.

4) 엠마오 성경반 / 60명

- (1) 입학자격 : 남, 여 세례교인
- (2) 수업일자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5) 중등반 / 60명

- (1) 입학자격 : 본 교회 교인으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등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타 교회 교인은 본 학원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함)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 원서교부 : 1980년 1월13일 ~ 2월 24일
- 2) 원서접수 : 1980년 1월 20일 ~ 3월 2일

4. 개강예배 : 1980년 3월 6일(목) 오후 7시 (유년부실)

* 기타 자세한 것은 본 교회 성경학원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현교회 267-9937, 9738, 260-2407.

북한선교회 서울성회

북한선교회 서울성회가 2월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본 교회당에서 모인다.

특별히 2월29일부터 3월2일까지는 전 기독교인의 금식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비상한 때는 만나 비상한 각오를 하게되는 뜻깊은 성회가 될 것이다.

“북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는 주제하에 열리게 될 이 성회의 강사는 강진명목사, 김창민목사, 한기원목사, 김홍도목사, 피종진목사이다. 온 교인들이 참가하여 하나님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월중 인사이동

1. 예배 위원회 (성가부)

임명

제1성가대 김민정(여) 앨토

제1성가대 홍중섭(남) 테너

제1성가대 정명희(여) 앨토

퇴임

제1성가대 박명련(여) 소프라노

제1성가대 안미영(여) 소프라노

제1성가대 민경옥(여) 소프라노

2. 교육위원회 (주일학교)

임명

유년부 김수열(여) 정교사

유년부 안숙영(여) 임시교사

유년부 백민정(여) 임시교사

유년부 이성직(남) 임시교사

장년부 이희원(여) 정교사

장년부 이봉섭(남) 정교사

장년부 최혜영(여) 정교사

가정부 신영순(여) 정교사

가정부 한연수(여) 정교사

가정부 김화(여) 임시교사

3. 심방위원회 (구역권찰회)

임명

봉천2구역 백순희 구역장으로

도봉1구역 이봉전 권찰로

도봉3구역 김홍순 권찰로

이동

잠실1권찰 박응녀를 오류구역으로

퇴임

봉천2구역 임남복 별세

각종 통계

1980. 1. 6 (매월 첫주 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주일 저녁예배 후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교회앞에서 출발합니다.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여주 방면 완행버스를 (20분간격) 타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셔서 「경기도 광주 초월 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남	여	계	총세대수		3,363		
집	예배	주일날	I 부	160	355	515	신	남	3,022	
			II 부	385	860	1,254		여	4,578	
			III 부	437	874	1,311		총수	계	7,600
			IV 부	163	412	575		남	1,673	
	주일저녁	202	351	553	세례입교	여	3,130			
		삼일	103	245		348	계	4,803		
	주일학교	어린이새신자부	22	18	40	유아세례	남	453		
		장년새신자부	29	59	88		여	316		
		아부	136	118	254	학습교인	계	769		
		유치부	162	141	303		남	249		
		유년부	136	200	336	여	358			
		초등부	189	185	374	원일교인	계	606		
		중등부	137	149	286		남	647		
		고등부	148	133	281	여	774			
		대학부	102	91	193	계	1,421			
		청년부	62	112	174	사회교육				
장년부		22	268	290						
노년부		32	98	130						
산전교육부	21	64	85							
새가정부	17	19	36							
	신교부									
	계	2,655	4,761	7,416						

2 월의 행사

- 3일 정기제직회, 재정위원회·산업전도회 월례회
- 8일 교회 전체 철야기도회
- 10일 남전도회 월례회 및 헌신예배, 권사월례회
- 11일 수도노회 교직자회, 구역장 실무교육
- 13일 여전도회 임원 철야기도회
- 17일 여전도회 월례회, 재정위원회, 선교실행 위원회
- 18일 교육위원회
- 20일 권사 철야기도회
- 21-22일 영아부 계절학교
- 24일 구역 권찰회, 전도위원회, 산업전도회 임원회
- 25일 건축 위원회
- 26일 정기 당회
- 25-27일 유치부 계절학교
- 26-29일 중등부 계절학교

편집하고 나서

*...전국 700만 기독교인들에게 비상 기도를 권하는 호소문이 일간신문을 채우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때를 맞아 다시 한번 크리스찬들이 경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교회에서도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학, 청년, 여전도회, 권사회, 구역 단위등으로 철야기도회가 매일 열리고 있다. 모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비상제엄령으로 알고 있는 처소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자. 차제에 우리 교회당에서 북한선교회의 성회가 열린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앞에 닥아서 발걸음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새성전 건축 허가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10여 년이상을 끌어 온 새성전건축 문제가 풀리는 듯 싶

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부터 문제가 쌓여 있다. 공로장로로 추대되신 우성원장로님의 말씀과 같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건축문제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참여 한다면 어려운 일만도 아니리라 생각된다.

*...이종운박사의 「교회성장의 원리」를 통하여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며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집으로 다룬 당회 산하 기관의 운영방안은 충분한 내용은 되지 못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서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성해 보았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각 부서의 임무, 활동 방향등이 확정되리라 믿는다.

* 1980년 월간총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 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중주

이형수

월 간 총 현

2월호

제8권 제2호

통권 제74호

1972년 4월30일 창간

1980년 2월24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주 간/윤형철

편집인/조현명

편집부장/이형수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장로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60-3407·3408

1980 년도 <1월 1일 기준>

위임목사



김 창 인
(당회장)

충현교회 교역자

부 목 사



김 재 창
(심방위원회위원장)



정 상 우
(교육위원회위원장)



한 영 철
(기도원지도)



김 종 택
(전도위원회위원장)



김 하 진
(성경학원·성가부지도)



이 성 봉
(장년새신자부지도)



허 준
(심방담당)



이 승 근
(청년부지도)



윤 형 철
(당 회장실장)



김 중 석
(도미 유학중)



김 석 원
(고통부지도)



남 성 호
(중통부지도)



유 재 일
(산업전도교육부지도)

강도사

남전도사



김 영 휘
(선교부 지도)



여전도사



이 두 란
(심방담당)



최 순 복
(심방담당)



강 봉 선
(심방담당)



구 명 신
(심방담당)



김 경 성
(대학부 부지도)



김 용 선
(심방담당)



정 연 희
(유치부 지도)



정 소 영
(영아부 지도)

공로전도사



김 순 애
(산업전도교육부부지도)



김 순 옥
(중등부 부지도)



김 은 숙
(어린이새신자부부지도)



김 연 이
(청년부부지도)



김 연 순



이 명 달



윤 영 탁
(새가정부지도)

교육전도사



안 석 렬
(어린이새신자부부지도)



이 양 우
(유년부부지도)



김 장 군
(유년부부지도)



최 봉 호
(초등부부지도)



이 상 원
(초등부부지도)



김 양 래
(초등부부지도)



김 정 훈
(중등부부지도)



성 주 진
(고등부부지도)



김 남 수
(대학부 지도)



조 준 상
(선교부부지도)



유 국 남
(선교부부지도)



김 경 신
(새가정부부지도)



이 손
(당회장실총무)



박 현 모
(노년부부지도)



현 정 남
(산업전도교육부부지도)



정 금 숙
(장년새신자부부지도)



김 신 성
(고등부부지도)



장 선 애
(교육연구위원회)